

## 危機의 哲學 哲學의 危機 (三)

鄭璣

왜 「타레스[탈레스]」는 물구덩이에 빠지는 身勢가 되었으며 이것을 目睹하고 □□하였다는 少女는 그와 正反對의 立場에 스게 되었을가요? 이들은 各 各 이러한 天□을 本□하고 나온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구태여 □□할 것도 없이 前者만이 저 하늘에서 落下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現實」도 「理念」도 다같이 認知하는 바고 또 可能한 일입니다.

人間에는 二面이 있습니다. 하나는 萬有의 一員으로서의 人間이요 또 하나는 人間으로서의 人間이 그것입니다. 卽 對外的 一面과 對內的 一面입니다. 그런데 이 宇宙에는 萬有에 其動하는 哲學的 理念이 實在하는 것이어서 對外的으로의 人間은 諸理念만은 攝取해 이룬바 對內的으로의 人間에게 갔어다가, 純粹人間의 特殊한 制約으로써 創造해 놓은 것이(人間界에서 볼 때) 곧 우리의 哲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全宇宙的 哲學的 理念을 攝取하는 데는 唯□思惟의 方法에 依據합니다. 그래서 이 思惟方法에서 얻은 바 大理念이 우리의 哲學이 되는 데는 이룬바 特殊한 制約이 있나니, 그것은 곧 觀察이며 經驗입니다. 卽 哲學(우리의)은 생각과 보는 것에서 되는 것입니다. 이룬바 宇宙的인 哲學的 理念의 把視은 唯□ 생각하는 것으로만 可能할 것이요, 우리 人間의 獨特한 □實은 보는 것으로 可能한 것입니다. 이룬바 大理念은 人間의 五官을 越하여 卽 人間에 對하여 既存의 實在이며 우리의 現實은 思惟의 存在를 無視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哲學은 생각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보는 것만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칸트」는 眞正한 知識을 理性和 經驗에서 보았습니다. 卽 理性은 知識의 形式을 □經驗은 그 內容을 附與하는 것입니다. 哲學은 思惟와 觀察의 和입니다.

그런데 或者는 哲學을 理想에서만 본데 □해야 偏僻히도 觀察에서만 본 或者는 思惟 그것을 □□ 非□해야 否定하게까지 된 感을 주었습니다(春園先生과 白元欽先生). 여기서 우리는 後者의 疑見과 □□을 直觀하는 바입니다. 思惟 그것의 根本的 否定은 吾人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兩

者는 同一한 偏見에 떠러진 것입니다. 人間 其 自體는 精神과 物質의 完全調和體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人間인 同時에 보는 人間인 것입니다. 人間의 精神은 一定不變한 全宇宙의 哲學的 理念의 表現이며 物質은 現世 그것입니다. 始終 생각만 하는 者는 저 나라 사람밖에 안되겠으며, 그는 적어도 우리의 哲學은 創造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기만 하는 사람은 땅 밑에 사람이니 그에게서도 亦是 哲學의 出生은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哲學은 制作입니다. 생각과 보는 것이 있어서만 可能的 우리의 哲學입니다. 그러나 思惟 그것이 觀察하는 것도 아니며, 經驗이 思惟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은 先有物이며 보는 것은 後有物입니다. 勿論 처음 마음이 없으면 보지도 못할 것이며(□面不見), 비록 보았다 하여도 思考作用이 없이는 哲學이 形成될 수 없을 것입니다.

如斯히 봄이 없을진댄 決코 생각만으로는 哲學이 形成되지 못합니다. 앞길을 보지 않고 하늘만 치어다 보고 가시든(思惟) 「타레스」先生은 畢竟 그 身勢가 되었습니다. 또 생각치 않고(行方을) 땅만 디려다 보고만 짓는 者는 必然코 壁에 부딪쳐 張次 肝腦賭地하고 말 運命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現實은 觀察의 對象이며 哲學은 現實과 思惟의 和成物입니다. 이 意味에 限해서 現實 그것은 哲學이며, 哲學은 곧 現實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타레스」가 哲學者라면 現實은 哲學者를 生産한 셈입니다. 그런데 現實은 相剋의 具現者를 生産할 理 萬無합니다. 그렇습니다. 「타레스」는 例의 少女人과 같이 하나의 遜色도 없는 現實의 產物입니다. 그러나 兩人의 差別은 여기에 비로소 生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는 現實을 透徹히 觀察하고 하나는 全혀 하지 않은 데에. 哲學者 그들은 現實兒라는 身分을 가지고 現實 그것을 無漏洪灌하며, 宇宙 溼滿實在한 哲學的인 理念을 攝取하는 機械裝置를 가추어 가지고 우리의 哲學을 探索해내어, 이것을 우리에게 報告, 敎說하여 未哲學者로 더부러 同情케 합니다. 그리고 哲學者된 者의 內部的 使命은 現實의 調和및 統一에 있습니다. 卽 哲學의 根本目的은 □學現象의 統一化입니다. 茲에 哲學은 二元論, 多元論 等を 根本부터 排□하지 아니치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哲學이 唯一한 理想을 세우고 出發하여 그가 始終 渴望不已하는 것은 完全無缺한 一元論입니다. 이 職責을 擔當한 者가 곧 哲學者입니다.

그래서 哲學과 現實과의 相容相納이며 調和가 亦難한 反面에 軋轢과 相爭, 矛盾衝突이 可易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는 끝까지 (一)이려는데 對하여 하나는 其 自身이 (多)입니다. 卽 前者는 오직 한 개의 概念만을 얻으라고 汲汲하는데 反하여, 後者는 如是한 時間의 疾走를 늦다하며 그 「多

」는 漸益增加되는 一方에 있습니다. 如斯히 哲學은 그 本來가 大膽無雙한 發意인만큼 아조 危殆한 課業이매 틀임 없습니다. 現實과 哲學은 以上과 같이 相互 不可離의 關係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그 根本目的으로는 兩極端에 서있는 것입니다.